

해외한인장로회(KPCA) 새 총회장에 서명성 목사

제47회 정기총회,
남가주 동신교회서 개최

해외한인장로회(KPCA) 47회 정기총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요 17:20-26)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총회에는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유럽,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250여 명이 대면으로, 80여 명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첫날 진행된 임원선거에서는 직전 부총회장인 서명성 목사(팔로마한인교회)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서명성 목사(67)는 MIT에서 Ph.D 학위를 받은 엔지니어 출신 목회자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후 1991년부터 신학공부를 시작해 풀러신학교에서 M.Div, Th.M, Ph.D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5년 샌디에고 북부지역에 교회를 개척해 28년째 목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 신임 임원으로는 목사 부총회장에 박태겸 목사(캐나다 동신교회), 장로 부총회장에 김재수 장로(브라질 상파울루 연합교회)가 선출됐다. 또 서기 김경수 목사(중앙노회), 부서기 신현철 목사(캐나다서노회), 회록서기 김광진 목사(서북남노회), 부회록서



남가주동신교회서 개최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7회 정기총회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기 노영호 목사(서노회), 영문회록서기 조수아 강 목사(영어노회), 회계 한성수 장로(뉴욕노회), 부회계 안병구 장로(뉴저지노회)가 새 회기 임원으로 구성됐다.

신임 총회장 서명성 목사는 “세속화의 파도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목회 상황이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격변기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가 본질에 충실한 총회, 건강한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총대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일치와 연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서 목사는 또 “예수님께서 성도와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그들의 평안이나 수적인 증가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며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소통하며 하나됨을 이루길 원한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이어 “사랑과 겸손의 자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총회 산하 모든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진리의 말씀을 중심 삼고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길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첫날 개회예배는 서명성 목사의 사회로, 이화영 장로가 기도했으며 김도완 목사가 성경봉독을 한 후, 남가주동신교회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박상근 목사가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창 22:1-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이재광 목사가 축도했다.

박상근 목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의 생애에도 언젠가는 모리아산을 만날 것인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준비하실 것”이라며 “여러분 생애의 모리아산에서 이삭까지도 기꺼이 찢려 바치는 결단을 통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며 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 내빈으로는 예정통합 총회장 이순창 목사를 비롯해 통합 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PCUSA 한인교회전국총회에서도 총회장 김성택 목사와 사무총장 주성영 목사가 참석해 양 교단의 교류와 협력을 다졌다.

해외한인장로회는 PCUSA 미국장로교 연금과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회자들의 미국장로교 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욱 기자

美 개신교인 77% “십일조는 오늘날 준수해야 하는 성경적 명령”

미국 개신교인들이 수입의 10%를 바치는 십일조를 성경적 계명으로 믿는지 여부는 연령과 교단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는 지난 4월 25일 미국 개신교 신자 4명 중 3명 이상(77%)이 십일조를 오늘날 준수해야 하는 성경적 명령으로 여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천명의 미국 개신교 신자에 대한 연구가 지난 2022년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사전 모집된 패널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수행되었다. 완성된 표본은 95% 신뢰 수준을 가지며 표본 오차는 ±3.3%를 초

과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응답자들은 십일조가 성경적 계명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66%). 교파에 따라 루터교인의 59%가 십일조가 성경적 계명이라는 데 동의한 반면 복음주의자는 85%, 비복음주의자는 71%였다.

한 달에 4번 이상 예배를 출석하는 응답자의 80%가 십일조가 성경적 계명이라는 데 동의한 반면, 한 달에 1~3번 예배를 출석하는 응답자의 72%가 십일조가 성경적 계명이라는 데 동의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콧 맥코넬 대표는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전히

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표준”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십일조를 계명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약간 감소한 것은 그런 가르침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인의 헌금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51%만이 출석하는 교회에 수입의 10% 이상을 헌금한다고 답했다.

31%는 십일조를 낸다고 응답했고 19%는 수입의 10% 이상을 헌금한다고 답했다. 한편 16%는 수입의 10% 미만을 헌금한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9%는 재정 상황 때문에 헌금이 어렵다고 답했고, 2%는 헌금하지 않았

다고 답했다.

연구에 따르면, 교인들이 십일조를 드리는 정도는 교단에 따라 다르다. 침례교(40%), 장로교/개혁(34%), 초교파(34%) 교회 신자들은 루터교(19%), 회복운동(17%), 감리교회(12%)보다 더 십일조를 바치는 경향이 높았다. 복음주의 교인(39%)은 비복음주의 교인(25%)보다 십일조를 더 낸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들이 예배를 출석하는 빈도는 십일조를 할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 달에 4번 이상 예배를 출석하는 교인(34%)은 한 달에 1~3번 출석하는 교인(26%)보다 십일조를 더 많이 냈다.

이미경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제5회·청소년 연합수련회
5th Joint Youth Retreat

Called to Be 자유의 부르심 Free

2023년 6월 19일(월)~21일(수)

-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 강사 김성민 목사
Cambridge University 물리학 학사
King's College London 물리학 석사
London School of Theology 신학 석사
런던 순복음교회 부목사(중고등부 담당)
- 대상 한인 청소년 선착순 100명(2023년 8월 기준 6학년~12학년)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열지 않는 교회의 학생에 한함
- 등록기간 5월 26일(금)까지
- 등록비 무료

You, my broth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sinful nature; rather, serve one another in love. (Gal 5:13)

등록 문의
www.lafgc.com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 951.928.4415
✉ lafgced@gmail.com

등록하기
SCAN ME!

“고 박희민 목사님의 사랑과 믿음의 발자취 따를 것”

고 박희민 목사 전국환송예배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으로 거행

미주 한인 교계 원로였던 고 박희민 목사 전국환송예배가 지난 12일 거주지의사에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으로 거행됐다.

장례예배에 참석한 해외한인장로회 총대원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 박희민 목사의 사랑과 헌신을 추모하며 겸손히 고인의 발자취를 따를 것을 다짐했다.

전국환송예배는 박성규 목사(KPCA 서노회장)의 집례로 서명성 목사(부총회장)의 기도예 이어 박상근 목사(총회장)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딤후 4:7-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상근 목사는 “고 박희민 목사님께서 은유와 겸손의 표상이셨고 이민 교회의 역사였으며,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았다”며 “선한 싸움을 마

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고인의 신앙 길을 우리 또한 충성되이 따라 걸어가자”고 권면했다.

설교에 이어 박성민 목사(뉴호프선교회)와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원로), 고 박희민 목사의 장남 피터 박 장로가 추모사를 전했다. 박성민 목사는 “고 박희민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전 세계를 일새 없이 다니셨고, 선교의 뿌리를 내리실 수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며 “겸소한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셨고, 진실로 크신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민중기 목사는 “미주 이민교회의 큰 산이셨고 지도자셨던 고 박희민 목사님께서 높은 실력의 학자셨지만 정감 어린 목회자셨다. 40권에 달하는 저서를 남기실 정도로 신학자이자 이론가였고, 열정적인 복음전도자이자 깊은 영성가이기도 했다”며 “이민사회를 보듬으셨던 고 박희민 목사님의 신앙의 열매가 남겨진 후손과 제자들, 동역자들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으로 거행된 고 박희민 목사 전국환송예배 ©기독교일보

안에서 갑절의 영광으로 맺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고 박희민 목사의 형 박희소 목사(전총회장)가 인사를 전했다. 김대순 목사(전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동욱 기자



시국 강연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로렌스 팩 박사 “미주 내 친북 단체 경계해야”

AKUS 한미연합회 LA지회 시국 강연회 개최

AKUS 한미연합회 LA지회(지회장 김영구 목사)가 지난 11일 로렌스 팩 박사(북한자유연합)을 강사로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다.

“미주 내의 친북 세력들”이란 제목으로 강연한 로렌스 박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친북 단체들과 조직을 소개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주의를 당부했다.

로렌스 박사는 이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우먼크로스DMZ, 노릇돌, LA 민족통신, 메아리 등의 단체를 언급하며 “이들은 외형적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이면에는 북한의 요구를 지지하고 미국 내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그룹과 연계되어 있다”며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미를 선동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렌스 박사는 특히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3446)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 종전선

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상은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 정권이 주장해 온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친북 세력들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킴으로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법안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자유롭게 만들어, 북한 독재정권으로부터 미국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이란 인도주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동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북한 독재 정권을 정치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영원한 이산가족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로렌스 박사는 “미국 내 친북 단체들은 북한의 주장과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미주에 있는 친북 단체들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 엄격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건강전도사 정주호 대표 초청 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5월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지난 13일(토) 에반겔리아 대학교 채플실에서 5월 정기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기도회 말씀 강사로는 한국에서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로 널리 알려진 스타트레이너 정주호 대표가 초청됐다. 정주호 대표는 “어린시절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희망도 비전도 가질 수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부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전도의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정주호 대표는 송중기, 이병헌, 한채영 등 많은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릴 뿐만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단체에서 영혼육 건강한 육신에서 오는 건강한 신앙을 알리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코스타 강사로 젊은 유학생, 이민자를 만나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 많은 도전을 주는 강사로 유명하다.

정주호 대표는 로마서 12:1-2를 본문으로 ‘몸이 성전이고 삶이 예배입니다’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현장에 참석한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간단한 운동을 진행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업체선 장로는 “요즘 같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기에 좋은 강사를 초청했다”고 강사에 대한 호감을 나타냈다.

기도회는 신용 회장의 사회와 신동직 총무의 대표기도에 이어 나라와 민족, 전쟁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기도, OC 지역사회와 교회, 목회자 및 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연합회의 활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최근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낸 진리 회원의 가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마무리기도에서 민김 부 이사장은 “43년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연합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관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중보기도를 마무리했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 미드웨스턴 73회 졸업식 거행

북미에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과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 지난 5일, 캔자스시티 캠퍼스에서 73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거행된 73회 졸업식에서 총 25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한국부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2명, 목회학 박사 4명, 교육목회학 박사 3명, 교육학 박사 1명, 목회학 석사 5명, 성경적 상담학 석사 1명, 신학연구 석사 1명, 사모학교 3명 등 총 20명이 졸업의 영예를 얻었다.

목회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예수전도단의 엄민규 찬양 리더는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건전한 신학을 배우는 것이 사역 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특히 “미드웨스턴의 교수진은 열정적인 가르침을 주는 교수들로 인해 배움을 넘은 섬김을 배우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68세의 최고령으로 졸업한 박종란 권사는 “미드웨스턴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값지고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는 평신도 리더로서 건강한 교회



©교회를 위한 신학-미드웨스턴 73회 졸업식 거행

를 세우는데 쓰임받고 싶다”라고 기대를 나타내 많은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날 성경사역학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이재운 목사는 <찰스 스펠전과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론 대조 비교: 그리스도의 지상 위임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실현하는 성경적 교회론 확립>이란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논문에서 이재운 목사는 스펠전과 뉴비긴의 교회론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교회론’을 연구했는데, 스펠전과 뉴비긴의 교회론을 비교, 대조하여 16, 18세기 교회의 정신을 통해 현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보이는 선교적 교회’를 제시했다. 이재운 목사는 논문을 통해 교회가 그간 선교적 교회가 가진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변화하는 세상과 발 맞추며 적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배의 중요성과 성경의 권위

를 강조하며 올바른 리더십을 갖추어 균형 있는 선교적 교회 모델을 제안했다.

미드웨스턴의 성경사역학 철학박사과정은 성경적 교회론의 실제적 지향성을 위해 21세기 문화 속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와 문화 모델을 현장 목양사역과 학문적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6명이 졸업했으며 수준 높은 논문들을 통해 현 시대가 요구하는 건강한 교회상을 제시하는 학위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 대두되는 교회 교육을 위해 교육학 박사과정을 개설함으로 ‘교회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신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한국부는 재학생만 720여 명으로 북미에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과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탁월한 교수진과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는 학교로 정평이 나왔다. 학교 입학에 관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mbts.edu/ks) 또는 한국부 사무실(김윤주 팀장; ks@mbts.edu)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제28회 학생 음악 축제 성황



LA 다운타운 지퍼홀에서 열린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제28회 학생 음악 축제 ©월드미션대학교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선율로 청중 매료시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음악과 제28회 학생음악 축제가 지난 12일, LA 다운타운 지퍼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협주곡 갈라 콘서트(Concerto Gala Concert)”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하기에 손색없는 무대였다. 매 연주가 마칠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 갈채와 함께 ‘부라보’가 터져 나왔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들은 지휘자로 무대에 올라 음악 예술의 다양성과 독특함, 본질적 요소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인상 깊은 무대를 선보였다.

연주회는 미국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의 “윈들러 리스트” 모음곡을 시작으로 피아

노 협주곡 장르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가 연주 됐다.

이어 바이올린 삼대 협주곡 가운데 하나인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부드럽고 낭만적인 선율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말로의 첼로 협주곡은 첼로 독주와 관현악이 서로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고전과 낭만주의 음악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돋보였다.

연주회 피날레로 울려 퍼진 베토벤의 코랄 판타지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협주가 합창과 어우러져 화려함과 웅장함을 뽐냈다.

음악회에 참석한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의 가장 대표적 협주곡들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특별히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보컬이 한데 어우러진 베토벤의 코랄 판타지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 총장은 이어 “본교 학생음악회가 지난 16년 동안 지역사회 음악 문화 사역을 섬기는 큰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에 큰 격려와 축하를 드린다”며 “이러한 결실로 오늘날 지역 사회 음악 문화, 그리고 교회 문화를 이끌어 가는 우수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장 윤임상 교수는 “지휘자들이 이번 연주회를 준비하며 기악 음악 협주곡들에 대한 높은 음악적 성취도를 가져올 수 있어 기뻐다”며 “기술적인 면이나 예술적인 측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인 연주회였다”고 호평했다.

김동욱 기자

월드쉐어USA 합창단, 창단 음악회 준비 한창

금번 가을 창단발표회 예정

종합선교기관으로 발돋움 중인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최근 선교합창단(주사랑 나눔 여성 합창단)을 창단하고 창단음악회 준비에 한창이다.

합창단은 매주 주일 오후에 모여서 연습하는데 단원들이 일주일 내내 연습 시간을 기다릴 만큼 행복한 시간이다. 처음 합창단 활동을 하는 사람도 만족하고 오래 성가대나 합창단 경험을 가진 사람도 합창단 연습 시간을 기다린다.

지휘는 남가주에서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하는 소프라노 문혜원 권사가 맡았고, 반주는 피아노를 전공한 김현아 사모, 오르간을 전공한 신혜영 사모 두 사람이 맡았다.

주사랑 나눔 여성 합창단(월드쉐어 USA 선교합창단)은 이름 그대로 주님 사랑을 나누는 합창단이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창단음악회 준비에 한창인 월드쉐어USA 합창단

커뮤니티와 선교지에서 찬양을 통해 주님 사랑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금번 가을에 창단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준비 중 합창단은 뜻있는 단원을(추가) 모집 중이다. 재능기부와 여가선용으로 음악을 통한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음악감독이자 반주자인 김현아 사모(323 630 7333)나 이영주 총무(661-993-3551)에게 문의하면 된다.

가정의 달 스페셜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36개월까지 0%이자가능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36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36Months

Lease Special

2023 KONA Electric SE FWD

\$199 10,000 mile/year
/MO + TAX \$4,995 due at lease signing

2023 IONIQ 5 Electric SE RWD

\$399 10,000 mile/year
/MO + TAX \$6,995 due at lease signing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미주성결교회 50주년... “성결의 복음 들고 세계로”

16일 신길교회서 기념예배 및 제44회 총회 개최예배 드려

미주성결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예배 및 제44회 총회 개최예배가 16일 오후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렸다.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가 사회를 본 예배에선 먼저 총회장 이대우 목사가 50주년 기념사를 전했다. 이 총회장은 “미주 땅에 한인 성결교회가 설립된 지 어느덧 50년이 된다”며 “지난 50년 동안 미주성결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미주성결교회는 2023년 현재, 208개 교회에 청장년 세례 교인 1만2천 명을 이루는 교단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우리 이민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이민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제 50년이 지나 선조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오늘의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동참하는 역사적 임무”라고 했다.

이 총회장은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미주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일해 왔다”며 “이제 다가올 백

년을 내다보며,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 선교의 사명을 미래에 전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전체 대의원들이 교단의 50주년을 감사하며 ‘은혜 아니면’을 다 함께 찬양했고, 50주년 기념영상 시청, 찬송, 부총회장 한상훈 장로의 대표기도, 서기 김종호 목사의 성경봉독, 기성 목사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 총회장 이대우 목사가 ‘디아스포라의 영광’(창세기 12: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총회장은 “50년을 맞이한 미주성결교회는 여러 면에서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와 있다. 성경에서 50이라는 숫자는 우리 말 ‘희년’이란 영어 ‘주빌리’(jubilee)를 번역한 것이고, 주빌리는 히브리어 ‘요벨’을 음역한 것”이라며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며 부채가 면제되었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미주성결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에 세우신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성결의 사도로 세우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며 “조국을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미주성결교회는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여호와께 성결’(Holy to the Lord, 습 14:20)을 선포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잊지 말자. 아브라함은 꿈을 잊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갔다. 미주성결교회도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약할 때



예배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강함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힘차게 성결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공로자 표창, 특별선교헌금 전달 순서를 가진 뒤 교단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주성결교회는 교단 설립 60주년이 되는 2033년까지 33개 교회 개척, 33명의 목사와 선교사 배출, 3천3백 명의 성결교인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후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가 환영사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장 김주현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제프 에드워즈(Jeff Edwards) OMS 총재는 축하 영상을 보

냈다. 기성 총회장 김주현 목사는 “지난 약 3년 간 우리는 코로나가 만든 어둠의 시간을 보냈다”며 “마침내 우리는 그 싸움을 끝내고 정상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했다.

그는 “미주성결교회 창립 50주년과 제44회 총회가 매우 중요하다. 미주성결교회가 세계 속의 성결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고, 성결의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총무 김시은 목사의 광고와 교단가인 ‘성결교회 노래’ 제창, 김석형 목사(전 총회장)의 축도로 모두 마무리 됐다. 한편, 미주성결교회 제44회 총회는 17일 본격 개최해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자체 여름 수련회 개최 힘든 교회들 위한 제5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오는 6월 19(월)~21일(수)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이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를 섬기고자, 제 5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한다. 오는 6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열리는 본 수련회는 자체적으로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들 위해 모든 비용을 무료로 제공한다.

강사는 김성민 목사로서, 현재 런던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종교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캠브리지대학 물리학 학사, 킹스칼리지런던 물리학 석사, 런던신학대 신학석사를 마쳤다.

수련회 주제는 ‘Called to Be Free(자유의 부르심)’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본문으로 한다. 이 수련회는 2016년 시작된 이래, 2019년까지 매년 여름 개최되었지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연기된 바 있다.

교회 관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 시기에 영적 도전을 주는 수련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남가주의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상황, 학생 부족, 교사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교회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여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기도원에서는 나성순복음교회와 함께 남가주 교회들을 섬기고자 연합수련회를 초교파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한인 중고등부 학생(6-12학년, 2023년 8월 기준) 선착순 100명이며, 교회당 등록인원은 15명 이하로 제한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예배 및 집회, 물놀이(Drop Zone Water Park), 조별 발표, 레크리에이션 등이다. 신청방법은 나성순복음교회 웹사이트(www.lafgc.com)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https://forms.gle/THH5p5k-BwDL3st2z8), 신문광고의 QR코드를 사용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 마감일 5월 26일까지. 문의는 전화 951-928-4415.

김민선 기자

발달장애인 위한 사랑의 마당 축제 열린다

5월 20일(토) 부에나파크 주니어하이스쿨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8회 사랑의 마당 축제가 5월 20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에 위치한 부에나파크 주니어하이스쿨에서 개최된다.

2000년부터 시작돼 38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및 단체들이 연합해 발달장애인과 일반인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장애사역 교회나 단체의 홍보, 정보 교환 등을 제공하며 경품추첨, 댄스파티 등의 놀이도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감사한인교회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공동주관하고, GBC미주복음방송과 Caravan Canopy, Hanmi Bank, 새생명비전교회, OC한인라이온스클럽에서 특별 후원한다.

문의는 714-365-7139 혹은 213-368-2630으로 하면 된다.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정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안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랜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1만 명 전도 목표

6월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 10만 명 참석 예상, 1만 명 찬양대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래함 전도대회'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오는 6월 3일 오후 3시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대회를 통해 1만 명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위는 12일 서울 극동방송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회의 의미와 목표, 준비 진행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준비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 담임)를 비롯해 기획분과위원장 주연중 목사, 안내분과위원장 박영호 목사 등이 자리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대회 당일 참석자 규모는 약 8만~10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 중 6만 명은 집회 장소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안에 들어오게 되며, 나머지는 대형스크린이 설치된 야외 광장에서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대형 집회인 만큼, 준비위는 참석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날 2천 명이 자원봉사로 나선다. 대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1973년 5월 30일부터 5일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 모습 ©극동방송

찬양대는 50년 전 대회 당시와 같이 1만 명으로 구성된다. 또 그 때 찬양곡이었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다시 한번 찬양한다. 준비위는 "(50년 전) 무대 뒤편 가득히, (찬양대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찬양했던 그 날의 감격을 6월 3일 다시 한 번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준비위는 대회 당일 참석자들이 전도 대상자와 함께 참석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대회를 통해 1만 명 전도를 목표로 한다. 준비위 측은 대회에 참석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빨간 색 모자를 쓰게 할 예정인데 이미 1만 2천여 개의 모자가 나갔다고. 이밖에도 결신자 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 신자들'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신자들을 대회 이후에도 지역교회와 연결시켜 그들이 계속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회 설교는故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대표)가 영어로 전하고, 김하나 목사(명성교회 담임)가 통역한다. 사회는 김의식 목사(예장 통합 부총회장)가, 개회사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개회기도는 이영훈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합심기도 인도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가, 축도는 김삼한 목사(명성교회 원로)가 각각 맡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에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는 격려사를 전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찬양 콘서트와 기념음악회도 진행된다.

대회 하루 전날인 6월 2일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청소년 집회'가 열린다. 약 3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집회에선 크리스천 패러 비와이가 간증하고,故 빌리그래함 목사의 손자인 윌 그래함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김진영 기자

기감 최대 중부연회, 'NCKK·WCC 탈퇴' 재결의

김찬호 감독 "NCKK, 교회 유익하게 하지 않고 변질"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최대 연회인 중부연회(김찬호 감독)가 지난 9일 열린 중부연회 실행부회의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와 세계교회협의회(WCC) 탈퇴를 재결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연회 실행부회의는 지난달 있었던 제82회 중부연회의 미진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열렸다. 중부연회는 "실행부회의는 정족수를 모두 채웠고 NCKK와 WCC 탈퇴를 합법적으로 재결의 한 것"이라고 했다.

중부연회는 NCKK 탈퇴를 결의한 이유에 대해 "NCKK가 매년 감리교회에서 지원하는 현금으로 유지되는 교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변질이 되어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인권상을 주며 교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NCKK에 파송된 이들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NCKK에 파송된 이들은 책임을 지고 이홍정 총무처럼 일괄 사퇴하기 바라고, 감리교회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의 일체를 차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중부연회는 지난달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가진 연회에서 재석 인원 475명 중 찬성 436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NCKK·WCC 탈퇴'를 결의했다.



기감 중부연회 실행부회의를 인도하고 있는 김찬호 감독 ©중부연회

당시 김찬호 감독은 "여기서 탈퇴를 결의한다 해서 중부연회만 별도로 탈퇴하는 것은 아니고, 총회에 연회원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의미"라며 "다만 NCKK와 WCC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계속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회원들의 결의를 모으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가장 큰 중부연회의 의견을 전달하면 다른 연회로도 파급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린 총정연회에서도 재석 813명 중 찬성 521명, 반대 7명으로 'NCKK·WCC 탈퇴'를 결의했다.

당시 김성선 감독도 "(NCKK·WCC) 탈퇴 건의를 (총회에) 올리겠다. 탈퇴를 우리가 지금 결의했지만 우리가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총회에 올려서 총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건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이순희 목사 "승리해서 찬양? 찬양하면 승리한다"

백송교회, 제10회 이순희&김성훈 찬양 콘서트

백송교회(이순희 목사)가 5월 7일 충남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제6차 다니엘 21일기도회의 첫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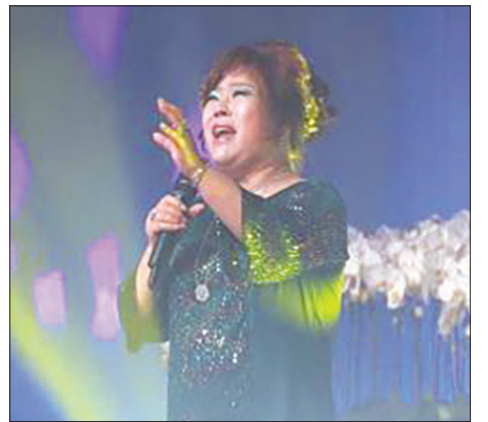
특히 첫날 기도회에서는 제10회 이순희&김성훈 찬양 콘서트로 진행됐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돼 모두 마스크 없이 대면으로 전국에서 참석해 함께 소리 높여 찬양했다.

2016년부터 매년 진행중인 다니엘 21일기도회는 3주 동안 새벽, 오전, 오후 하루 3번의 예배를 연이어 드리면서 치열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여, 속사람의 소생과 도약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 집회이다.

이날 콘서트는 백송교회 찬양팀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비전' 등의 찬양과 로이스&청년 워십팀의 댄스 워십 'Say Say' 등으로 문을 열었다.

김미리 목사와 김용재 전도사 사회로 열린 찬양 콘서트에서 이순희 목사는 무대 구성부터 의상까지 다시 찾아온 봄을 상징하듯 푸릇푸릇하게 꾸며 눈길을 끌었다.

이순희 목사는 콘서트에 앞서 "다니엘 21일기도회는 밀도 높은 하루 3번 예배를 통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받는 백송교회 최대 집회"라고 소개했다. 이대웅 기자



드레스를 입은 이순희 목사가 찬양하고 있다. ©백송교회

이 목사는 "손뼉치며 온몸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실 것"이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 전제와 같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은 찬양에 있다. 앞길이 막혀 답답해도, 찬양하면 승리한다. 승리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 승리한다"며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중에 갇혀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다. 오늘 모두 찬양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콘서트에서는 이순희 목사의 아들인 바리톤 김성훈 백송교회 음악감독과 함께 새로운 신곡을 듀엣으로 선보였다.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미 남침례회, 교인 45만명 감소... “100년 만에 최대”

최근 보고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남침례회(SBC)는 지난 2022년 교인 숫자가 45만 명 감소했다. 이는 10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로 하락한 것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전했다.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Lifeway Christian Resources)는 지난 해 침례와 예배 참석이 증가했지만 약 45만7천명이 남침례회를 떠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라이프웨이에 따르면, 남침례회 총 교인 수는 2021년 약 1천368만 명에서 2022년에는 1천322만 명으로 하락했다.

라이프웨이는 “전체적으로 남침례교회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약 3%의 교인 감소를 겪었다”며 “2022년 교인 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가장 적은 숫자”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인 수는 1950년에 보고된 약 7백만 명보다 훨씬 많지만 2006년에 보고된 최고 수치인 약 1천630만 명보다는 몇 백만 명 적다.

2022년 SBC 연례 교회 프로필 통계 요약 보고서는 SBC 회원 교회 숫자가 2021년 4만 7천614개에서 2022년 4만7천198개로 416



2022년 6월 14일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2022 SBC 연차총회. ©IMB 제공

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416개 교회에는 폐쇄되어야 했던 교회와 여러 가지 이유로 SBC를 떠나기로 결정한 교회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SBC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징후를 보고했다. 2022년에는 침례가 16% 증가하고, 대면예배 참석이 5% 증가하고, 소그룹 참석이 4% 증가하고, 헌금이

2%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SBC는 2022년에 18만177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는 2021년에 세례를 받은 12만3천160명보다 거의 6만명이 더 많은 숫자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캇 맥코넬 대표는 “교인 감소의 대부분이 교인에 대한 최근 기록 업데이트에 기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교인 감소의 대부분은 수년 전 개별 교회에 참여를 중단한 사람들을 반영하며 기록 보관이 마침내 이를 따라잡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의 총 교인 수는 사망이나 교인 자격에서 탈퇴한 사람으로 인한 가감뿐만 아니라 추가도 즉시 반영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교인 기록을 삭제하는 데 느리다”라고 했다.

미국의 대부분 개신교 교단과 달리 SBC는 20세기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그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SBC의 교인 숫자는 점차 감소했으며 이는 미국 내 종교단체 간 가입 감소 추세를 전반적으로 반영한다.

CP에 따르면, 이달 초 미국장로교(PCUSA)는 연간 통계를 발표했는데 2022년 교인 수가 5만3천명 이상 감소하여 전체 교인 수가 약 114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기자

코로나 이후 18개 美 기독교 대학 문닫거나 합병돼

높은 학비, 주정부 지원금 지연도 한몫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18개 기독교 대학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거나 강제 합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최근 미국 교육전문 매체 ‘하이어에드다이브’는 전국의 수십 개 대학의 폐쇄 또는 합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유행 외에도, 높은 대학 진학 비용, 정체된 주정부 지원, 고등학교 졸업생 등록자 수 감소 등을 대학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185개 이상의 회원 기관으로 구성된 ‘기독교 대학 및 대학교 협의회’(CCCU)의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아만다 스타젠보그는 이러한 추세가 대학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젠보그는 CP에 “세속 및 종교 기관 모두 등록 감소를 경험했다”면서 “출산율 감소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감소

하고,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감소했다”고 했다.

특히 기독교 대학은 세속적인 공립 대학이 학생 수 감소를 경험하기 시작한 지 6년 뒤인 2016년까지 등록률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국립교육통계센터(NCES)가 업데이트한 최신 보고서에서 학부 기관의 전체 학부 등록자 수는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9%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감소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전체 학부생 등록은 2020년과 2030년 사이에 8%(1590만 명에서 171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스타젠보그는 2020년 연구인 “다양성과 원격 학습: 사립 비영리 기독교 대학의 온라인 등록과 소수자 등록 간의 관계에 대한



미국 시더빌대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 © 시더빌대학 페이스북

탐색적 연구”를 인용하여 등록 감소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학생 등록 감소는 규모가 큰 공립 대학보다 사립 비영리 대학이 그 영향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또 “출산율

감소, 국가 인구 통계의 변화, 대학 간의 경쟁, 그리고 안정된 경제는 전통적인 기숙형 대학 경험을 원하는 신입 고등학교 졸업생수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스타젠보그는 “특히 기독교 대학이 그들의 가치를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세속 기관이 아닌 신앙 기반 기관을 다닐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여줌으로써 등록을 늘릴 수 있다”며 “기독교 고등 교육의 가치를 알리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신앙은 기독교 고등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곳에서 학생은 대학 환경에서 배운 기술과 결합된 하나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했다.

올해 초 CP는 워싱턴 DC 소재 미국교육협의회(ACE)에서 열린 “종교 대학의 운명”에 관한 회의에 대해 보도했다. 이 회의는 종교 대학 등록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종교적 정체성을 수호하고, 지역 기업과 협력하며,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캠퍼스 풍토를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유진 기자

182년 된 앨라배마주 교회, 출석률 감소로 폐쇄



파이브마일장로교회 전경. ©WVTM

182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엄의 한 교회가 출석률 감소로 문을 닫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파이브마일장로교회(Five Mile Presbyterian Church)는 지난 7일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렸다. 폐쇄 후 이 교회의 원래 건물과 묘지는 신탁돼 유적으로 유지된다.

이 교회의 목회자인 샤론 아이치(Sharon Eich)는 지역 뉴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 데 대한 슬픔이 분명히 있다”며 “지난 몇 년간은 내 인생에서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이 교회에 출석해 온 그녀가 교회에서 목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을 때 회중은 약 40명이었고, 교회가 폐쇄될 때 그 숫자는 9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녀는 많은 교인들이 사망했거나 요양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해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교회가 폐쇄될 당시 건물은 30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에어컨이나 욕실과 같은 현대식 편의시설이 없었다고 한다.

교회와 인접한 남북전쟁 시대 공동묘지는 신탁될 계획이며, 해당 노회가 1958년 벽돌 성소와 회관을 소유하고 다른 교회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강혜진 기자

‘힐송 사임’ 칼 렌츠 목사 “더 이상 목회 않는다” 공개 표명

‘힐송의 비밀들’ 방영 다급 앞두고 인스타그램에 게재

뉴욕 힐송교회(NYC) 전 담임 칼 렌츠 목사가 “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서 “나의 죄가 일부 어두운 곳으로 날 이끌었다”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렌츠 목사는 최근 마이클 토드 목사의 변혁교회에 전락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

렌츠는 9일 저녁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원하는 놀라운 교회에 있지만,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난 설교하거나 사람들을 감동하지 않는다. 내 역할은 가능한 한 관점과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돕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은 FXNetworks(FX네트웍스)가 5월 방영 예정인 ‘힐송의 비밀들’(The Secrets of Hillsong)이라는 새로운 다큐 시리즈를 홍보하기 위해 공개한 2분 분량의 티저 이후에 나왔다.

5월 19일 오후 10시에 FX에서 2개의 에피소드와 5월 26일 2개의 에피소드로 첫 공개되는 이 다큐시리즈는, 성과 리더십 스캔들로 인해 2020년 11월 뉴욕 힐송교회에서 해고된 렌츠 목사의 인터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렌츠 목사는 글에서 “지난 3년간 유일한 우선순위는 내 아내와 아이들이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제와 치유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와 평행을 이루어야 했다. 솔직히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소문, 거짓말, 나, 또는 우리에 대한 절반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전에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것처럼 그들을 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아직은 많은 노력과 정직과 기도로 갈 길이 멀었지만,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하며, 의도적으로 정직한 곳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5일 20주년을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기념했다”고 했다.

렌츠 목사는 2020년 11월 뉴욕 힐송교회의 직원을 포함해 여러 명의 여성과 만남을 갖고 아내에게 불성실했던 것을 포함해 ‘리더십 문제’와 도덕적 실패로 인해 해고됐다.

렌츠와 아내 로라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대가를 받고 독점 인터뷰를 진행하려 하다는 소문이 몇 달 동안 있었지만, 렌츠 목사는 사역의 실패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다큐 시리즈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이 인생에서 정직과 자유에 이르렀을 때, 지옥을 통과했을 때,



칼 렌츠 목사. ©YouTube / FX Networks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너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가치한 느낌과 씨름하는, 내가 아는 많은 이들 모두에게 바라는 자유이다. 그것이 저를 어두운 곳으로 이끌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렌츠 목사는 자신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변혁교회(Transformation Church)의 태미 맥쿼터스(Tammy McQuarters) 담임목사는 “그가 회복됐다고 믿기에 3월부터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했으며, 그가 다른 이들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예식이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818)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이른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어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스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어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오후 1:30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태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정식)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인제문(요정식)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영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피뉘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토요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요한 담임목사

Global United Church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캠프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차세대)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아)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 오전 11:30 (토-일) - 헌정성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N)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토요일 한국교회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한세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통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교로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참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찬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대.청)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사지) 오후 8:00
중보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a.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vkum.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토)예배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gvimg.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엔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미 텍사스 대형교회, UMC 탈퇴후 독립 교단 창설



텍사스 사우스레이크에 위치한 화이트 채플 연합감리교회.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해 미국 연합감리교회(UMC)를 탈퇴한 텍사스주의 대형교회가 자체 독립 교단을 출범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우스레이크에 본부를 둔 화이트 채플(White's Chapel)은 최근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독립 감리회 교단인 '감리교대학교회'(Methodist Collegiate Church, MCC)를 창립했다.

2500여 명을 보유한 이 교회는 작년 11월 교인 투표에서 찬성 2338표, 반대 160표, 기권 7표로 UMC 탈퇴를 확정 지었다.

화이트 채플은 MCC 공식 페이지를 통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다양한 관점을 위한 공간을 만들며, 차이를 체재하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교단을 만들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MCC는 정보와 피드백을 수집하여, 2023년 상반기 내로 정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MCC와 UMC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교단 장정을 산하 모든 교회의 세부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MCC는 "이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믿음과, 따르기로 동의한 과정 및 절차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MCC 장정은 일부러 지역 교회에서 유지되는 보충 장정의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며 "보충 장정은 지역 교회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구현하며, 교회가 사용할 규정, 과정 및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고 밝혔다. 이 점은 MCC가 2022년 4월 출범한 보수 감리교 교단인 '세계감리교회'(GMC)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GMC에는 현재까지 UMC를 탈퇴한 2천여 교회가 가입돼 있다.

웹사이트의 FAQ 페이지에 따르면, MCC는 "지역 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리더십 권한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우리는 콜로키움(자유로운 의견 교환) 수준의 규율을 공통된 교리와, 채택된 조직 및 연결 구조에 한정하려고 한다. 조직 원리로서 연결성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화이트 채플은 탈퇴 과정에서 공개된 문서에서 "교인들은 교단의 지속적인 분열이 UMC가 파손된 기관임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면서 "주어진 대안은 우리의 상황이나 신학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우리가 재정비를 모색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선교와 사역 모두에서 협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감리교 교회들과 연합하기를 희망한다"며 "공유하는 사역, 평등한 책임 및 실질적인 통치로 정의되는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구상한다"고 덧붙였다.

UMC는 최근 수년간 동성 결혼 축복과 동성애자 사제 서품을 금지하는 공식 입장을 두고 지속적인 논쟁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 개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김유진 기자

기도하는 미국인 87% "작년에 기도 응답받아"

새로운 여론 조사에서 기도하는 미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지난 1년 동안 "최소한 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 신앙 옹호 단체 '래디언트 재단'은 4월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미국인 1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미국인 기도 랩'(2023 American Prayer Wrap)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기도하는 응답자의 87%가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85%는 자신이 "더 높은 권능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더 높은 권능과 연결되는 방법을 "기도"(61%), "명상"(39%), "마음 챙김"(38%), "긍정문 암송"(30%), "영적 기반의 요가"(14%) 등을 꼽았다.

조사에서 평균적인 미국인은 하루에 두 번, 매일 18분 동안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4%는 "그들이 어떻게 믿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길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간은 "취침 전"(55%), "해 뜰 때"(50%) 그리고 "밤"(45%)이었다. 이어 "저녁식사"(29%), "오후"(27%), "아침식사"(27%), "출퇴근 중"(25%), "산책 중"(25%), "등교 또는 출근 전"(20%), "집안일 도중"(16%), "해질 때"(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인 10명 중 9명 이상(94%)은 "혼자 기도한다"고 답했으며, 그밖에 "가족"(67%), "종교 또는 영적 그룹"(61%), "애완동물"(50%), "친구"(40%) 및 "낯선 사람"(27%)과 함께 기도한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83%는 지난 1년간 "침실에서 기도했다"고 답했으며, 61%는 "차에서 기도했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예배당에서 기도한 사람은 절반 이하(46%)에 그쳤다. 기타 기도 장소로는 "자연 속"(43%), "샤워실"(40%), "공동묘지"(23%), "종교적 성지"(18%), "학교"(16%), "대중교통"(14%), "체육관"(11%) 순이었다.

가장 일반적인 기도 제목은 "위기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76%)과 "아픈 사람의 건강"(71%), "위기 상황에서 통탄하는 타인"(68%), "아플 때 자신의 건강"(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를 하는 시기로는 "중요한 여행이나 출장 전"(47%), "중대한 기후적 사건 중"(45%),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38%), "취업 면접 전"(33%), "검사나 시험을 치르기 전"(30%), "발표나 공연 전"(28%)이었다.

특히 미국인의 10명 중 8명 이상(85%)은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답했고, 68%는 "친구를 위해", 62%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52%는 "배우자나 중요한 지인"을 위해 기도했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 미만은 "폭력 피해자"(44%), "애완동물"(32%), "군 복무자"(24%), "종교 지도자"(23%), "선출직 공무원 또는 세계 지도자"(22%)를 위해 기도했다.

가장 많은 미국인은 기도의 동기를 "하나님과의 연결"(70%)이라고 답했으며, 기타로는 "불안이나 우울을 덜기 위해"(45%),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41%), "삶에 대한 통제력을 얻기 위해"(36%), "더 나은 자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얻고자"(32%), "트라우마 치유"(29%), "자신감 획득"(28%), "가족 및 지역사회와 연결"(22%), "자연 또는 더 큰 세상과의 조화"(20%), "힘을 얻고자"(18%), "중독 극복"(12%) 등을 동기로 꼽았다.

김유진 기자

英 사상 최초 '세 부모 출산' 이뤄져... 기독교 단체 "윤리적 선 넘어"

'디자인 된 아기' 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돼

영국에서 세 사람의 DNA를 가진 아기의 출산이 이뤄진 가운데, 기독교 단체가 새로운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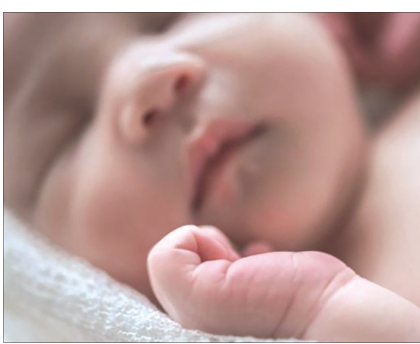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의하면, 부모 두 명의 유전자에 또 다른 여성의 유전자 0.1%를 기증받은 아기가 태어났다. '미토콘드리아 기증 치료'(MDT)란 여성 기증자의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난치병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다.

영국 인간수정발생 이사회는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5명 미만의 영아가 태어났다고 밝혔으나, 가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2015년 영국은 결합 미토콘드리아 보유 여성의 결합이 계속 유전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과 관련해,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서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

미토콘드리아 결합은 근무력증, 간질, 심장 문제 및 지능 장애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영국서 신생아 200명 중 1명 꼴로 미토콘드리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지금까지 결합 보유자 중 32명의 환자들이 결합이 계속 유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실험 기술 수용을 허가받았다.

결합 미토콘드리아 여성을 위해 과학자들은 여성의 난자나 임신 태아로부터 유전 물질을 취한 뒤 기증 난자나 태아에게 옮긴다. 이때 기증 난자들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Unsplash/HuChen

핵심 DNA는 제거된 상태다.

기독교 자선단체인 CARE의 제임스 밀드레드(James Mildred)는 MDT의 출현에 대해 "일부 우려하고 있으며, 윤리적 선을 넘었다"고 했다.

밀드레드는 "어린아이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 및 MDT의 발달이 '디자인된 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며 "핵 DNA를 숙주 기증자 난자 세포로 옮기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는 "사용된 기술은 또 인간 배아의 파괴로 이어져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셋이라는 사실에 아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에 사용된 생명공학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된 아기'라는 망령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윤리적 선을 넘은 것이 분명하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깊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해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현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전 6:00 18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OC제물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전 6:00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주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경연구회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 1부 오전 7:45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매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한중)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장미안예배 오전 11:30 정어장년부 오전 9:30, 11:3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3부예배 주일 11:00am 4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혁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분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한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1:15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인도서 폭력 사태로 기독교인 수십 명 사망, 수천 명 피난

100개 이상의 교회도 불타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기독교인들 수십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현지 교회가 "정부는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마니푸르주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기독교인 쿠키족을 포함한 소수민족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는 "100개 이상의 교회가 불에 탔고, 가정과 성경대학을 포함해 기독교인 소유의 건물 300여 채가 추가로 파괴됐다"고 전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현재 많은 실향민들이 현재 임시 수용소에서 생활 중이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인도 오픈도어의 한 파트너는 "현지 상황이 '끔찍하다'"며 "우리는 인도 정부에 소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와 같은 폭력 행위를 공개적으로 규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대피 중이다. 그러나 아직 집이 파괴되지 않은 경우"라고 했다.

폭력의 물결은 대부분 기독교인 소수인 쿠키 부족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후에 시작됐다.

그들은 "대부분 힌두교인 메이테이족이 시위를 벌이는 동안,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오픈도어 파트



인도 마니푸르주에 위치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픈도어

너인 비쉬누 레디(Vishnu Reddy)는 "힌두트바" 민족주의의 성장이 폭력의 요인"이라며 "힌두교가 아닌 소수민족을 향한 폭도의 공격과 같이, 이는 지역 외부에서 촉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힌두 민족주의의 RSS 그룹(Rashtriya Swayamsewak Sangh) 회원들은 수 년 동안 메이테이를 급진화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지금 기독교인들은 집에서 도망치고 있다.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이 있다. 그들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박탈당하고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협곡을 넘어 아골 골짜기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한 권서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서울과 평양처럼 큰 도시와 산간 마을과 낙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성경을 전한 복음의 참범들이 있었다. 그들이 권서였다. 이들은 성경 북침을 메고 팔도를 누비며 예수와 천국을 외치며 성경을 팔았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초창기에 선교사들에게는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원래 이 권서 제도는 1804년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된 후 성경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권서 제도는 영국 성서공회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가 세계로 진출하면서 본격화 되었고 선교지마다 제도화 되었다.

이들 각 공회는 현지인들인 권서를 채용하여 그곳에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전도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 역시 현지의 권서들을 채용하여 이들이 전도를 하며 성경을 현지인들에게 유가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 권서의 배후에는 선교사들이 있어 성경과 전도지를 제공하였고 이들을 유급제로 하였고 권서 활동에 전념케 하였다. 이 권서들은 조선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여행의 자유를 제한 받는 시기에 이들은 북침에 성경과 전도지를 짊어지고 여러 험지와 오지를 다니며 전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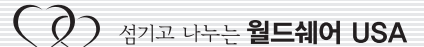
조선에서는 일찍이 북침 장사꾼들을 통해 생활용품 등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국내의 북침 장사꾼들과 국경을 넘어 중국을 드나들면서 흥삼과 한지 등을 팔며 다녔고 특히 평안도 의주 출신들이 이러한 국경 물자 교류하는 데에 많이 종사하였다. 이 권서들은 마을들을 찾다니면서 주민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복된 소식이 이 책안에 있습니다. 자 성경 책을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 그 주민은 돈이 없으니 판매 거부"라고 응수하면, 권서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보리쌀도 괜찮고 계란도, 짚신도 좋습니

다."라고 하면, 다시 응수하기를 "글세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나니 까요.", "아 그러면 제가 글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처럼 이 권서들은 성경을 읽어주고 심지어는 가르쳐 주기도 하여 읽을 수 있게 하였다. 권서들은 성경 한 권을 팔아야 한다는 성취감 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그에게 "제가 다음 장날 다시 올 터이니, 성경을 잘 읽어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 보세요."라고 하였다.

이같이 성경을 권하며 전도하며 때로는 가르치는 역할을 한 최초의 조선인 권서들은 본래 만주를 다니며 흥삼이나 한지나 약초 등을 지고 다니다가 존로스 선교사들 만나게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중에 서상륜은 의주 출신 북침 장사꾼들이 이성하 김진기, 백홍준과 집안 출신인 김청송과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조선어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여 출판하였다. 하지만 1880년대에는 쇄국 정책으로 외국에서 서양 종교 문물들이 반입할 수 없었다. 이에 존 로스 선교사는 1882년 3월에 그의 제자이며 성경을 출판하는 데에 석자공으로 봉사한 김청송을 고구려의 수도였던 집안으로 보내어 성경을 보급하게 함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를 주러 존 로스 선교사가 그 마을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권서들의 사역에 대해 벵커(Bunker D.A, 1853~1932) 선교사는 이같이 증언하였다. "권서들은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 가본 적이 없는 마을에 들어갔다. 그리고 길이란 여관이란 어디 가든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팔았다. 이들의 성경 보급은 교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교회는 마을의 신앙공동체가 되었다.

■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줄리어스 시저 (Julius Caesar)"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로마의 장군 줄리어스 시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외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바탕으로 국내 정치적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갈리아 지역을 정복 후 게르만족을 정복하고 영국으로 진군했습니다. 나아가 아프리카, 소아시아,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려지는 클레오파트라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공화체제의 로마를 군주국으로 만들어 자신이 군주가 되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시저가 자신의 이런 계획을 구체화하자 추종세력은 의견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중에 그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반면에 그의 뜻을 반대하고 공화 정치의 전통을 지키려는 자들도 있었는데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였습니다. 그들은 줄리어스 시저를 제거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구체화했는데 거사일은 44년 3월 15일, 장소는 카피톨 신전에서 시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3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흥분을 끈 시저의 아내 칼푸르니아(Calpurnia)는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위험을 감지하고 밖에 나가지 않은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그녀의 말을 무시합니다.

아내의 만류를 무시하고 거리에 나온 시저는 친구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만났습니다. 거리에 군중이 3월 15일을 조심하라고 외치고 점쟁이도 그의 앞길을 막는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리 중에는 시저를 왕으로 모시자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곧 시저는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원로원으로 향하여 가다가 음모를 꾸민 사람들의 칼을 맞습니다. 쓰러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시저는 사랑하는 친구 브루투스가 있는 것을 보고 "브루투스! 너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브루투스는 황제가 되려는 친구를 만류하지 못하고 결국 그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시신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원수를 갚을 결심을 굳게 합니다. 그는 살인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장례식에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사이에 브루투스는 자리를 떠나고 한 메신저가 나타나서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Octavianus)가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안토니우스에게 알렸습니다.

시저의 시신을 신전에 모시고 먼저 브루투스가 연단에 올라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시저가 죽어야 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받았던 그는 시저가 황제가 되었다면 모두 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친구 줄리어스 시저를 사랑하면서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청중의 분위기를 완전히 자기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저의 삶을 기립니다. 안토니우스가 전하는 시저는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민중을 사랑하는 따뜻한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안토니우스는 시저가 승리를 동료와 함께 나누는 군사 한 지도자였고, 왕관을 세 번이나 거절했던 사실을 군중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들은 군중은 동요했습니다. 브루투스 등 시저를 죽인 자들에 대한 군중의 분노가 높아졌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피 묻은 시저의 옷을 가리키며 친구를 배반한 브루투스는 잔인하고 뻔뻔한 배신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안토니우스 연설에 동요한 군중은 돌을 들고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성난 군중을 보며 안토니우스는 흡족한 미소를 짓고, 시저를 죽이는 일을 도모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성난 군중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로마에 돌아온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는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Lepidus)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와 자신들의 장래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시저가 떠난 후에 해야 할 일들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군인을 징집하고 군사를 키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와 한판 대결을 준비하였습니다.

브루투스가 군대를 일으켜 필리피 평원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략을 짜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서 양쪽 군대는 자연스럽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카시우스가 안토니우스 군대에 맞아 먼저 죽었고, 브루투스는 싸움에 지고 자결을 하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죽은 친구 브루투스의 시신을 보면서 진정으로 로마를 사랑했던 위인이자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마르쿠스 브루투스의 장례식을 예를 갖추어 거행하라고 명명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구 세 사람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살해되었고, 마르쿠스 브루투스는 허망한 자살로 끝났습니다. 선동적인 연설가 아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두 사람의 죽음을 수습하지만, 본인의 운명 또한 위태롭습니다.

이상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의 줄거리입니다. 본 작품 시저를 살해한 후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본 작품의 제목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중간에 사라지고 남은 자들의 권력 투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죽고 죽이는 본 작품은 인간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동료나 친구를 살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본 작품에 "브루투스! 너까지?"라는 말은 인류의 배신을 상징합니다. 셋째 인간 쟁투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권력을 향한 충성과 배신 그리고 복수로 점철된 본 작품은 쟁투에서 승자와 패자 모두가 패자라고 가르칩니다. 평화가 승리요 평화가 성공입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기독교(신학), 목회학(신학, D.Min), 상담학(신학, 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신학)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연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CSI, SACS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고난에 꺾이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는
늘 푸르른 그대여, 오라!

2023 센터메디컬그룹 장학생선발

백만 불
장학금 대장정
6 번째
이정표

골프 대회 장학금 기부자 명단

기부자 한 분, 한 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Pak Su Yong
- Kim Helen
- Suh Joann
- Wille Kim
- Mark Kim
- Gimi Yoon
- Ku han Yoon
- Woowon Ok
- Calvin Kim
- Richard Lee
- James Jung
- Jiny Kim
- Julie Lee
- Hyun A moh
- Mi Ye Yim
- Hee Ja Park
- Kelly Ko
- Yong Shin

- Jung Kyo Yoo
- My Guen Ham
- Chan Paek
- Joo Haeng Lee
- Frank Jin
- David Kang
- Steve Hong
- Sangwook Park
- Jinyong Son
- Jungnam Park
- Kangil Kim

- John Jhun
- Susan Jhun
- James Jo
- Joo Won Jo
- Vivian Kim
- Grace Park
- Daniel Park
- John Kim
- Paul Chun
- Joey Kim
- Joseph Ko
- Sunny Lee
- Jun Lee
- David Paek
- Andrew Lee
- Alice Lee
- Soo Hwa Lee
- Sophia Kim
- Philip Kim
- Chang O Park
- Steve Back
- Austin Park
- Max Jong
- Phil Chon
- Jimmy Jung
- Kwang Shim
- Sangeun Shim
- Yong Woon Kim

- 박수영 내과
- 김민성 내과
- 강신욱 내과
- 박항 내과
- 동부 병원
- 단손 메디컬
- MBN

- Duk Hee Jang
- Jang Mi Baek
- Sun Jin Kim
- Jenny Jeon
- Minnie Ryu
- Mrs. Ham
- Young Il Lee
- Sang Jin Lee
- Jongsik Kim
- Kelly Yi
- Sim Hong Sub
- Yi Chong Ki
- Young Yee
- Jong Chul Park
- Young In Kim
- Kwang Ho Yoon
- Sung ik Lee
- Jin soak Chung
- Jung In Choe
- Young Chul Joh
- MoonHo Lee
- Eun Sik An
- Kwang Park
- Woo Hee Tack
- Sungwon Lee
- Kee Hyoun Lee
- JoungNe Jang
- Grace Min
- Jack Lee
- Yoon No
- Moo Sub Sim
- Kwi Soo Kim
- Robert Choi
- Gunn Chung
- Sandy Chung
- Laura Kim
- cho ng Chong
- Hayward Chae
- Kris Yoon
- Sok C An
- Eric Jun
- Kim Yong Chul
- Choong Y Cho
- Seong Hyeon Kim
- Myung Han Kim
- Justin Chon
- EunYoung Chon
- Byong Kwon Chon
- Ae Yim Chon
- Hyung Chul Kim
- Samuel Woo Kim
- Young Hee Moon
- Jeong Seok Chae



선발 인원_ 000명

선발 대상_ 2023 고교 졸업 대학 신입생

지원 방법_ Center IPA Foundation 웹사이트

(<http://foundation.centeripa.com/Home/About>) 온라인 접수

접수 기간_ 2023년 5월 31일 자정까지 (서부 시간)

참고 사항

* 선발된 장학생들은 E-mail을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 장학금 전달식 : 6월 15일 오전 11시

쉐라톤 세리토스 호텔
(12725 Center Ct Dr S, Cerritos, CA 90703)

전달식 후 뷔페 오찬

장학생 준수 사항

반드시 본인 참석 및 지각 금지
대리 참석 및 지각 시 수령 불가

문의처

foundation@comso.org
Tel: 714-800-3168

강준민 칼럼

소박한 행복을 가꾸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소박한 행복은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들을 기대하며 삽니다. 특별한 행복을 꿈꾸며 삽니다. 그런 까닭에 일상 속에 감춰진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 행복을 감춰 두셨습니다. 일상은 평범합니다. 담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행복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행복은 극단적입니다. 심지어 파괴적입니다. 때로는 폭력적입니다. 사람들은 “엽기적 그녀”와 “조폭 마누라”와

같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내면에 감춰진 폭력성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과도한 쾌락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 깊은 맛이 있는 행복, 아름다운 행복은 기쁨을 제공해 주면서도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우리피데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삶의 소박함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소박한 행복은 작은 것 속에 담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마 13:31). 작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마 13:33).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십니다(눅 16:10). 그 이유는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고, 천상의 기쁨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행복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도토리 한 알을 심으면서 참나무 숲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작은 성취, 작은 목표 달성, 작은 선행, 작은 깨달음, 작은 진보에 기뻐하십시오.

소박한 행복은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감사

하는 것입니다. 소박한 행복은 겸손한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것을 불행, 비극, 그리고 절망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 비극, 그리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을 통해 아름다운 기적을 창조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는 우리가 불행이라고 붙인 사건을 통해 전개되었습니다.

소박한 행복은 적응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탁월한 적응력에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는 적응하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는 줄지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친동생 베냐민과 생이별을 하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팔려 갔던 보디발의 집에서 잘 적응합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머무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감옥

에서도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창 40:4).

소박한 행복은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자족의 반대는 불만입니다. 불만을 품으면 불행합니다. 반면에 자족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작은 소유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합니다. 자족은 원죄를 타고난 인간의 천성은 아닙니다. 자족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신성한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익힐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12).

소박한 행복은 우정을 가꾸는 데 있습니다. 이번 모국 방문 중에 장경철 교수님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장교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복은 우정이었습니다. 우정은 소박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요 15:15). 우정은 격렬하거나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고요하고 은은한 사랑입니다. 소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천천히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참된 우정은 쉽게 시들지 않습니다. 우정이 주는 행복은 격렬하고 충동적인 사랑에 비해 그 수명이 깁니다. 우리 함께 소박한 행복을 배우고 가꾸도록 합시다.

송재호 칼럼

어머니 날의 감사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한국에서는 없는데 미국엔 있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바로 어머니 날(Mother's day)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아버지 날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하는 날을 지키지만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주일을 특별히 어머니 날(Mother's 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어머니 날이 시작된 계기는 지금과 많이 다른 의미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머니 날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어머니의 모성을 상징하는 여신 시벨레(Cybele)와 키벨레(Kubele)를 위

한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드리드 시벨레스 광장은 유명한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장의 이름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자연의 신 시벨레의 이름을 딴 것으로 시벨레 여신이 두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있는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벨레(Cybele)는 쿠빌리아(Kubilya)란 뜻으로 산의 어머니(Mountain Mother)란 의미이며 키벨레(Kubele)는 그 뜻이 어머니 신입니다. 이렇게 시벨레(Cybele)와 키벨레(Kubele)를 위 한 축제는 위대한 어머니에게 바치는 축제인 키벨레 여신이 로마에 도착한 4월 4일을 기념해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어머니 날의 기원은 1900년대 초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의 안나 자바스(Anna Jarvis)라는 여성이 어머니가 사망한 해인 1905년 어머니를 기리는 공식 휴가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1908년에는 고향인 West Virginia Grafton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공개 기념관을 열면서 이 휴일에 첫 번째 축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 후로 미국 전역의 더 많은 주에서도 점점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914년 토머스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

령이 어머니 날을 5월 둘째 주일 공식 휴일로 인정하는 선언문을 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머니 날이 지켜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 구약 성경 여러 군대에도 어머니 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할 수 없게 하셨지만 그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셔서 이스라엘에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여인의 한나의 모습 속에서 참된 어머니상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한나는 구약성경에서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로써 온 세계 믿음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성경 디도서 2장 4절-5절 말씀에서는 자녀 사랑의 소명을 받은 어머니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헬라어 단어 “필레오테코노스”는 특별한 종류의 모성애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식하여 돌보고, 안아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 따뜻한 친구가 되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 여인이 임신 8개월째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아이가 살려면 산모가 죽게 되고, 산모가 살려면

아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중에 목사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매는 “하나님은 저에게 결혼의 축복을 주셨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매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매는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만 아기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은 주님 곁으로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수술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아들의 생명을 선택한 고귀한 사랑 말입니다. 이처럼 2000년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고귀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에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동행 하시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호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소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웹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www.Kidokshop.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양의 정성이 가득...
이리 추운데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채소 오븐만두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가정이 곧 교회여야 한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2013년 빛과 소금이란 기독교 잡지에 실린 실화입니다. 1990년대 중반 평양에서 순교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재단사로 일을 하였지만, 대를 이어 신앙을 지켜온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따라,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탈북한 그의 딸의 증언입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모였어요. 작은 아파트의 뒤쪽 방에서 가족들이 모였죠. 아주 조용해야 했어요. 기도하

고 찬양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속삭였죠.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불로 머리를 덮기도 했어요.” 모임은 가족에서 친구로, 이웃으로 커져갔고 끝내 김세를 찬 당국의 급습으로, 아버지와 삼촌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급히 산으로 도망했고, 국경선을 통과해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가 절 안아주시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언젠가는 정부가 알아내고 체포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치러야 할 신앙의 대가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죽음이 닥쳐도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박해 지수 단연 세계 제1위의 북한, 그 심장부에서 살면서, 어떻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땅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

른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깨닫는 진리는 ‘아, 가정이 참된 교회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흥행에 목마른 영화나 사람이 주인공인 공연처럼 군중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녹여내고 사랑으로 전달하는 참된 신앙의 전수가 가능한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전해지는 믿음은 건강한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든 긴장과 위선을 내려놓고, 약함과 허물을 벗어벗듯이 다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만, 커서 대학을 들어가거나 자립하여 부모를 떠나게 되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부모에게서 예수님을 발견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진짜가 아니면 가정 목회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면 오히려 나의 약함 속에서 더 잘 드러나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신앙이 되면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이 다른 거짓과 위선을 이기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녀들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주님이 없는 가짜 평화를 버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화목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준수 칼럼

너무나 고마우신 장인어른



이 준 수 목사
남가주말알선교단
영성문화사역팀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광야를 행진하던 모세가 백성들의 일을 재판하느라 매우 분주한 것을 보고 이드로가 “왜 이 많은 일을 너 혼자 하려 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분담해서 하라”며 모세에게 유익한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사실 모세에게 있어 가장 고마운 사람은 바로 다름아닌 장인 이드로이다.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 정성스레 키워준 애굽의 양어머니도 고맙지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 갔을 때 이드로는 그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주어 자신의 딸 ‘십보라’와 결혼시키

고 수많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기는 등 모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모세가 장차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장인 이드로의 이러한 커다란 도움과 배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에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도 이드로는 아무 의심이나 제지도 없이 딸과 사위, 외손자들을 기꺼이 보내주었다. 나는 나의 장인어른 역시 이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세에 만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지극히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 장인어른은 이드로를 능가하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내가 지금 아내와 가정을 꾸려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한량없는 배려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비록 우리의 결혼엔 찬성하지 않으셨지만, 사랑하는 딸이 집을 떠나 몸 불편한 장애인에게 오는 것을 아무 말없이 묵인해주신 덕분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 23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당시 우리 장인, 장모님 겪으셨을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하고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결혼 9년만에 가족이 다시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 장인어른 완전 내 편이 되어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다. 항상 “우리 이 목사~” 하시며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느 누구보다 장인어른께 상의드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우리 가족을 보러 미국에 오셨을 때는, 당시 밀알의밤 준비로 몹시 바쁜 나를 파스가 위로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전해준 유익한 격려와 조언을 우리 장인어른도 나에게 해주신 것이다. 또 작년 가을, 서울을 방문해 장인, 장모님을 두 번 찾아 뵈었는데, 당신의 그 리운 딸과 같이 오지 못했는데도 부족한 사위를 위해 너무나 극진히 베풀어주셨다. 글자 그대로 상다리까지 부러질 정도로 풍성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배불리 먹여주셨고, 용돈도 두둑이 주셨으며, 내가 남편 노릇, 아빠 역할을 참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같이 간 내 동생에게도 부모님을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며 파스가 위로해주서

서 동생도 가슴이 울컥했다고 한다.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커다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어서 힘이 날지만, 나는 이분들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이 받기만 해서 참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 앞으로 우리 장인, 장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지극히 미약하겠지만, 아내, 아이들과 함께 더 사이좋게 열심히 살고 맡은 일에 충실해 적어도 이분들의 마음에 염려는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여 본다. 부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우리 가족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모습을 꼭 보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준수 목사와 장인어른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엔지니어 없이 프로의 소리를!

- ❖ 1년에 4회 정기방문
- ❖ 연간 2회 무료 방문
- ❖ 음향기기 이력관리
- ❖ 기술상담 및 교육

2. 교회 방문

프로 엔지니어의 맞춤형 솔루션!

- ❖ 스피커 분석 및 세팅
- ❖ 장비 업그레이드 상담
- ❖ 유튜브 기술 상담
- ❖ 음향, 영상, 조명 설치

3. Solo시스템

태블릿 하나로 예배준비 끝!

- ❖ 모든 교회에 설치가능
- ❖ 와이파이 기반 서비스
- ❖ 강단에서 음향, 영상, 조명을 컨트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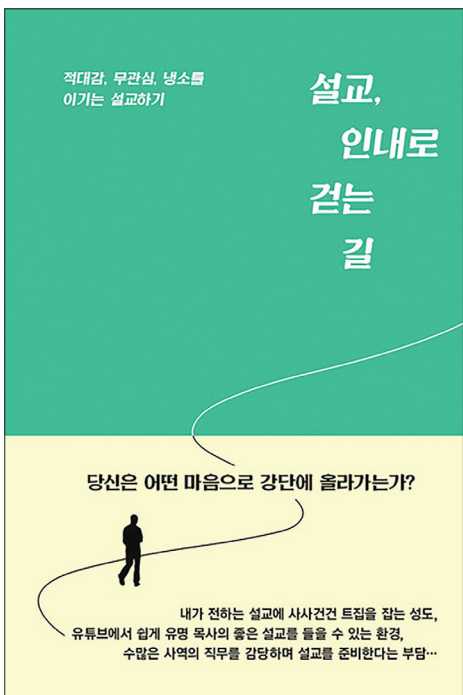
4. 상담 및 교육

비싼 미디어장비 제대로 활용하자!

- ❖ 전문가가 직접 방문
- ❖ 유지, 관리비용절감
- ❖ 고장 발생시 신속처리
- ❖ 미디어 사용법 교육

[크리스찬북뉴스서평]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설교, 잘하고 싶은가 끝까지 충성하고 싶은가?



설교, 인내로 걷는 길
 브라이언 크로프트, 제임스 캐럴
 김진선 역
 디모데 | 254쪽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는가?
 적대감, 무관심, 냉소를 이기는 설교하기

목회자들이 설교를 지속하는 차원을 넘어 끝까지 충실한 설교를 하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책!

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미 설교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책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은 <설교, 인내로 걷는 길> 저자 중 한 사람인 제임스 캐럴이 또 다른 저자인 브라이언 크로프트에게 이 책을 내자고 제의했을 때 보인 반응이었다(19쪽).

사실 그렇다. 설교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캐럴과 크로프트는 책의 특징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교회의 재활성화라는 맥락에서 설교를 다룬 책”이라는 것이다(20쪽). 설교자들이 “일종의 적대감과 무관심과 냉소, 곤경을 경험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설교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재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21쪽).

17년간 오번데일 침례교회에서 가르친 크로프트와 2010년부터(지금까지라면 약 13년간) 파크웨이 침례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캐럴은 목회자를 실제적으로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의 공동저자로 합당하다.

그들이 겪은 과정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까지 설교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수고하고 있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선포한다.

보통 설교자는 더 좋은 설교를 위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책을 자주 찾는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설교자의 습성에 부합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습성 때문에 자주 망각되는 영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책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설교자가 될 것인지 너무 많이 고민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끝까지 충성스러운 설교자가 될 것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부 ‘인내한 설교자들’에서 크로프트와 캐럴은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인내한 설교자들’을 묘사한다. 성경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설교자는 항상 고난과 역경을 동반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충성했다고 독자를 다독인다.

설교자가 겪는 모든 무관심과 냉소, 적대감 중에는 설교자의 부족함 때문에 겪는 것들도 상당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저자는 책망받기 마땅한 부실한 설교의 예와(3장), 강해 설교의 기본원리(4장), 장기간에 걸친 충실한 설교(5장)가 무엇인지 각각 제시한다.

3부 ‘장애물을 극복하는 설교’의 세 장에서는 두 저자가 실제 설교자로서 겪은 적대감, 무관심, 냉소를 소개하며 그것을 극복한 실질적 원리들을 제공한다. 찰스 시미언이 당한 고난이나 두 저자가 겪은 어려움은 설교자들에게 큰 공감과 도전을 줄 것이다.

설교자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말씀의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존 맥아더, 존 파이퍼 등 현대 교회

의 충성스러운 설교자들의 예시도 큰 유익이 되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아무리 유명하고 실력 있는 은사가 뛰어난 설교자들도 자기 설교에 자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흠뻑을 친 것 같은 날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책이 자주 말하는 일종의 무관심과 냉소를 경험한다. 유명할수록 더 많은 적대감을 만난다.

설교자는 청중의 칭찬을 얻고자 설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맡기신 책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어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이다. 자기 부족함을 자랑하고 되 그것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라면 부지런히 훈련하고 다듬어 더 좋은 도구가 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권위와 은혜와 영광에 사로잡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성실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두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는 교회의 재활성화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설교, 인내로 걷는 길: 적대감, 무관심, 냉소를 이기는 설교하기>를 통해 많은 설교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맡기신 일에 항상 충성하기를 간구한다. 그 수고의 열매는 고스란히 주께서 사랑하시고



©픽사베이

설교자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돌아갈 것이고, 머리 되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이 설교자가 자기 일에 헌신하는 궁극적인 이유 아닌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니
 사도행전 2:28

2023. 5. 14

As for God, his is the LORD is flawless besides the LORD except our God? with strength and me

2023. 5. 14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s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ACTS 2:28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국제에이스 USA 이사장
 (원)남가주 교외임의외교 변호사
 (원)제미발행회 협회 고문 변호사
 (원)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빈센트 반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

이 작품 때문에 반 고흐 '자살설' 이... 그의 마지막, 진실은

까마귀, 서양 미술에서 부활 등 긍정적 의미 영화 <열정의 랩소디>, 자살설 사실로 굳혀 반면 영화 <영원의 문> 타살설 기초로 제작 신화는 진실보다 매력적이나 영원하지 못해

빈센트 반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Wheatfield with Crows,1890)은 일부 학자들로부터 그의 죽음을 예고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빈센트는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동생 테오는 갤러리 딜러인 부소(Boussod)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얼마 전 아들을 얻은 동생의 가정에 집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작품이 그의 착잡하고 심란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고 풀이하였다. 하늘은 찌푸려있고 길은 막혀있으며 밀밭 위로 불길한 까마귀가 나는 것을 증거로 든다.

그러나 이 해석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늘의 폭풍우는 평소 빈센트가 좋아하던 풍경으로, 보리나주 시절 폭풍이 몰아치자 "하나님의 위대한 경이로움"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까마귀의 이미지는 바르비종 화가들이 자주 기용하였던 소재이다. 서양 미술에서 까마귀는 부활과 재생의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라영환이 지적하였듯, 고흐에게 까마귀는 봄의 소식을 알리는 '새로움의 전조'였다.

필자가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황금빛 밀밭 사이로 난 길이다. 그는 단축법을 사용하여 마치 감상자 앞으로 길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화려한 색상은 길의 중요성을 높이는 구실을 한다.

그는 왜 이처럼 길을 강조하였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설교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설교문에서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길과 같습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순례자가 물었습니다. "종일 걸리는 길입니까?"

여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예,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순례자는 근심하지만 다시 기뻐하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괴롭기는 했지만, 멀리 석양 빛속에서 찬란하게 반짝이는 '영원한 도시'를 올려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1876.11.5)

빈센트는 변연의 『천로역정』 내용에 기초하여, 우리의 인생은 순례이며 '영원한 도시'로 가는 여정임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여정에 "많은 불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며 많은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말로 순례길이 여의치 않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화면에서 길이 안 보이는 것을 두고 반 고흐의 절망적인 심경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인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길이 안 보이는 것은 하늘의 도성에 이르려면 지상 세계의 이방인인 순례자는 이 세상을 낮은 땅으로 여기며 최종 목적지를 향해야 함을 암시한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그의 자살 신화를 탄생시킨 작품으로도 유명한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어빙스톤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열정의 랩소디>(Lust for Life, 1956)이다.

어빙스톤의 영화가 개봉되면서 빈센트의 자살 신화에 쐬기를 박았는데, 영화에서 빈센트는 그림을 그리던 중 뜬금없이 일어나 들판에서 자신에게 총구를 겨눈다. 영화의 여파가 얼마나 컸던지, 그 후 많은 사람이 그가 자살하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불변의 사실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줄리안 슈나벨의 <영원의 문>(At Eternity's Gate,1998)을 보면, 스토리가 전혀 다르게 묘사된다. 이 영화에서는 고흐의 죽음을 소년들의 일탈행위에서 찾는다. 지금까지 그의 죽음을 정신병에 의한 자살로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다.

영화에서 빈센트는 그를 괴롭히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손 총에 심각한 총상을 입는다. 소년들은 빈센트에게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하고 화구를 숨기고 총은 강에 던져버린다.

<영원의 문>은 고흐의 죽음이 타살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이 타살설을 주장한 주인공은 전기 작가 스티븐 네이페(Steven Naifeh)와 그레고리 스미스(Gregory W. Smith)로, 고흐의 자살이 정설이 되다시피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 연구가는 그 당시 십대의 르네 세크레탕과 그의 형 가스통의 행적에 주목한다. 그중 르네는 짓궂은 장난에다 허세까지 겸비한 불량소년이었다. 르네는 미 서부극에 심취한 나머지 카우보이 의상을 즐겨 입었으며 이 의상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진짜 총을 추가했는데, 그것은 빈센트가 머물던 여인숙의 귀스타브 라부(Gustave Ravoux)에게 구입한 38구경 권총이었다.

르네는 후일 권총에 대해 '빈센트가 자신의 가방에서 총을 훔쳤다'고 둘러댔으나, 네



빈센트 반 고흐, 까마귀가 나는 밀밭, 50x103cm, 캔버스에 유채, 1890, 암스테르담 반 고흐 뮤지엄 소장.



영화 <영원의 문> 포스터.

이페와 스미스는 그림을 그리고 있던 빈센트를 놀리며 괴롭히던 중 오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았다.

총기사고 후 화구와 총기가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죄 지은 자가 아니라면 그것들을 가져가거나 숨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현장에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군가 이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총기사고 후 이를 뒤에 빈센트가 사망한 것은 그의 타살설에 힘을 실어주며 경찰이 왔을 때 "아무도 고발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고 답하며 세크레탕 형제를 보호하려고 했던 점도 자살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빈센트 디 마이오(Vincent Di Maio)도 타살설을 거둬들고 나섰다. 법의학자인 디 마이오는 빈센트의 총상 부위에 주목하였다. 즉 대부분 권총 자살자들은 머리 부위를 겨냥하지 흉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와 그의 동료는 747건의 권총자살 사건을 연구했는데 그중 복부에 총을 쏜 사람은 단 1.3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둘째로 오른손잡이인 빈센트가 왼쪽 흉곽에 총을 쏘는 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었고, 셋째로 빈센트의 상처가 완두콩 크기만 하다고 했는데 1890년대 권총에 사용되던 흑색화약은 지저분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빈센트가 총을 쏘았다면 상처 부위의 피부는 화약 찌꺼기에 의해 수백 개의 화상 자국과 타버린 화약가루가 남았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적어도 50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탄환이 발사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점은 네이페와 스미스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신화는 진실보다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적이지 못하다. 세상에 진실보다 앞서서 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련의 주장은 빈센트의 죽음에 대한 추측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영원한 도시를 사모하며 순례의 길을 걸으며 외롭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섬겼던 그의 기독교 정신은 그의 뜨겁고 강렬한 작품 속에 봉인되어 우리의 눈길과 재발견을 기다리고 있다.

BBC의 장수 드라마 닥터 후(Doctor Who) '반 고흐' 편에는 안내자를 따라 방문한 미술관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빈센트가 감격해 하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 속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미술사에서 반 고흐가 차지하는 의미는 단지 세계 최고의 예술가일 뿐 아니라, 예술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상담심리학과 디렉터 모집 공고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상담심리학 석사(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디렉터로 재직하실 교수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자격요건:
- 기독교 분야 석사 학위(M.Div., M.A. in Theology, M.A. in Christian Counseling etc.) 취득자
- 상담심리학 분야 박사(Ph.D. in Counseling Psychology, Doctor of Psychology) 학위 취득자나 그에 준한 자
- 미국 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인된 기독교상담심리학회나 목회상담협회의 1급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나 감독 자격 취득한 자 우대

- 제출서류:
- 국문 이력서
- 영문 이력서
-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작성):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하되 근무한 모든 기관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필히 기록 바람.
- 영문 강의계획서(Syllabus) 샘플 1부
-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영문 원본 각 1부: 졸업대학 사무실에서 직접 이메일(stevehong@ptsa.edu)로 보내주거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로 우편 발송
- 목회자 추천서 2부
- 교수 추천서 2부
-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금)까지
- 지원서류 수신 담당자와 이메일 주소: 최교운영책임자 홍성학 교수 | stevehong@ptsa.edu
- 모든 서류는 e-mail(PDF)로만 받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스포켄 반석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

워싱턴주 스포켄에 위치한 반석침례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 남침례교단 회원이거나 가입가능한 자, 미국 내 합법 체류자
- *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받을 인품과 성실함이 있으신 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 (목사님/사모님)
- 2. 자기소개서 (가족소개 및 가족사진)
- 3. 설교동영상 또는 음성파일

- 지원방법:
- 이메일로만 접수받습니다.
- 보내실 이메일 주소: Jayyon4@gmail.com

반석침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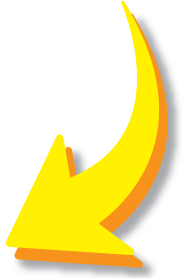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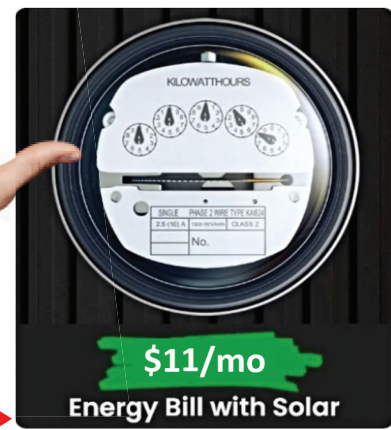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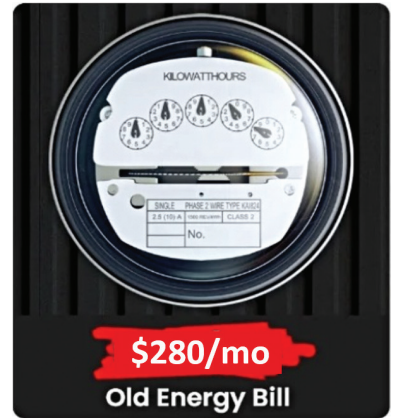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SCAN ME

**100%
Made in
USA**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